

## 보사부,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 추진

건협도 자체 계획 수립해 추진키로

보건사회부는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사업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확대·실시하기로 하고,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보사부·학계·민간단체 등의 대표, 각 부처 차관 등 28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첫 회의를 갖고 사업계획 '안'을 심의했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5월 15일 가정의 날의 가족 걷기 대회·기념우표 발행·가족합창대회 등의 건전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가 있으며, 또 가정 관련 제도를 보강키 위해 오는 '96년 하반기 중 노인질병 예방 및 치료 등 종합

적 보건사업 추진을 명문화한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도 보사부의 방침에 동참하는 뜻으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즉 건협은, 가족 건강 지키기 운동 전개·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검사·건강 내용의 가정통신문 보내기·가족 건강관리 관련 소책자 제작·이웃사랑 실천 운동 전개·청소년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교육 실시 등의 계획을 수립해 '94년 한해동안 실천하기로 했다.

## 에이즈 예방에 함께 나서자

건협 경남지부, 에이즈 예방 캠페인

을 전개했다.

마산시의 주관으로 합포구 동성동 불종사거리와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던 이 캠페인에는 건협 경남지부를 비롯해 합포구·회원구 보건소, 마산시 유흥조합·요식업조합·다방조합 등의 단체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예방하는 일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제6회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에이즈 예방 캠페인

## 30년 실적 정확히 분석 평가, 발전하자

임한중 부회장, 시무식 석상서 강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월 3일 '94년도 시무식을 갖고, 올해도 국민건강

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한중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건협이 창립된지 30년째가 되는 해이니 만큼 그동안의 실적을 정확히 평가·반성하여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위한 지표로 삼을 것』과 『우리의 사업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또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도 모색해 보자』고 당부했다.

### 성정웅 총무부장, 서울시장 표창 받아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성정웅 총무부장이 이원중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장은 성부장이 건협 서울시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한편 특히 시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받게 된 것이다.

### 건강산악회, 신년 산행

건협 서울지부, 설악산 대청봉 올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직원으로 구성된 '건강산악회'가 '94년도 신년 산행을 가졌다.

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이 산행에서 산악회원들은 설악산 대청봉 1,708m를 종주했다.